

# 청년불자 1만인 전법단 결성된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청년불자 1만인 전법단'이 결성된다.

부산 범어사와 범어사 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 지구, 대불련 부산지구부, 범어사 금강암 청년회 등 부산 지역 10여 개 청년단체 관계자들은 2월 24일 범어사 문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청년불자 1만인 전법단 결성'을 위한 '청년불교연대'를 창립했다.

이날 창립된 청년불교연대는 매월 한차례씩 모임을 갖고 1만 청년전법단 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청년불교연대를 이끌고 있는 대불련 부산지구와 범어사는 우선 청년불자 1만인 결성을 위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 부산지역 청년단체 '청년불교연대' 창립장기적인 포교 프로젝트 공동 추진키로

20대 청년불자 포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청년회에서 활동 중인 중장년층의 경우 오랜 신행경력을 청년포교 활성화에 쏟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선지식초청 전문즉설' '신인생 환영법회' '인터넷 포교' '희망의 집 지어주기' '도심의 작은 학교' 등 적극적인 봉사과 수행, 포교 프로그램이 결합된 장기 사업안도 구상중이다.

이와 함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수행하는 불교청년회, 발전하

는 불교청년회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1만 청년 전법단 결성은 일어불은 청년불교 조직에 불을 지피고 활로를 찾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범어사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 지구는 지난 1월 일자로 온·오프라인 청년불교모임의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연대와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후 흥법사 청년회, 청년불자연합회, 불교불림클럽, 대불련 부산지구, 대불련 부산동문회, 자등명청년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한 1차 준비

모임을 통해 '1만 청년전법단 결성을 위한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1월 29일, 30일 양일간 진행된 합동수계법회는 참담한 실패였다. 참여한 인원이 준비미흡 참여 인원보다 적어지면서 청년불교연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대두됐다. 하지만 머구름도 잠시, 청년불자들은 다시 의기투합했고, 청년불교연대 창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은 "시작은 비록 초라하게 보이지만 1만 청년불자들이 결성되는 그날까지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나누고 힘을 모아나가기 한다"고 강조했다. (051)467-5241 부산=천미희 기자



10년 동안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불교TV의 최장수 프로그램 사진제공=불교TV

## 개국 10주년 맞은 불교TV

### 영상포교의 선구자 재정난·변화에 둔감

영상포교 시대의 지평을 연 불교TV(회장 성우 스님)가 3월 1일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불교TV는 95년 케이블TV 방송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위성방송까지 병행하고 있어 '영상'을 통한 법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포교의 선구적 역할 이면에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미약한 재정 확충 및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개발 미흡 등이 그것이다.

#### ■ 얼마나 성장했나

불교TV는 그간 많은 시청자수와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의 개발 측면에서 괄목한 성장을 일궈냈다. 2005년 현재 방송위원회 시청률 조사에 따르면, 불교TV의 시청자는 30만 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년간 제작된 프로그램만 해도 약 1000여 편에 다다르며 방송시간은 종일 방송에 가까운 하루 21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미디어

교화를 영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풀어야 할 과제

올해를 '혁신적 영상포교 프로그램 개발 원년의 해'로 천명하고 전력투구한다는 것. 이러한 취지에 맞춰 불교TV는 '달라이라마의 입보리행론(3월 3일, 10일 12:00)', '불향기득한 보석의 섬, 스리랑카(3월 4일 19:30)',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3월 6일-5월 8일 매주 일요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의 효율성확보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한달 평균 약 5천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IMF이전에 비해 광고수익이 3분의 1 정도로 감소해 자금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바깥에서는 '손 안의 TV'라고 불리는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지만 불교TV는 이러한 영상매체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간혹 경영에 치중해 나머지 과감한 제작비를 투입해 일관 영상포교 콘텐츠의 제작이 아닌 현장 법회 촬영 위주의 프로그램 제작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병철 기자

## 대불련 총동문회 정기총회 성기태 회장 연임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사진)는 2월 19-20일 대전 경화호텔에서 2004 정기총회 및 동문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현 성기태 회장의 연임을 결의했다. 또한 2005년에는 봉축행사와 자비의 밤, 사회복지법인 등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8개 대학 동문 74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대불련 동문 윤리 강령제정에 관하여-윤세원 부회장(총동문회) △대불련인의 사회참여와 자비실천방안-법륜 스님(태고종 교무부장) △대불련 활성화와 회관건립 방안-정용학 재정부위원장(총동문회) 등이 발표됐다.

강지연 기자

## '불자마라톤동호회' 창립 3월 5일 만해교육관서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이하 동호회)가 3월 5일 오후 4시 만해교육관에서 정회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고복식 및 회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확정짓는다. 동호회 준비부 이운권 위원장(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국장)은 "마라톤을 좋아하는 불자들이 모여 마라톤을 통해 포교활동을 하고 싶다"고 결심취지를 밝혔다.

한편 동호회 준비위원 15명은 2월 13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마라톤 타임즈가 주최하는 '야!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폴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등에서 완주하는 기업을 토했다. www.kbmc.org 강지연 기자

## 철도 무사고 기원법회 철불철 회원 300여명 참가

철도불자들이 철도 무사고 기원과 한국철도공사 창립을 축하하는 법회를 열었다.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회장 김해수)는 2월 19일 김천 직지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창립기념 및 철도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철불철 소속 22개 법우회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1부 철도공사 창립 및 철도발전 기원법회, 2부 철도희생자 천도법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자비'를 대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월 26일로 법인 허가 10주년을 맞았다.

80년대부터 대두된 불교복지단체 설립 필요성에 의해 구성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정부 시설 위탁과 봉사자 양성으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불교복지의 터전을 마련해왔다.

현재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양적 성장은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95년 구조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이던 복지재단 산하 시설이 2005년 현재 94개소에 이르며 불교계 위탁시설은 450여 곳이다. 이는 종교 복지의 성공적 모델로 꼽히는 천주교와도 규모면에서는 뒤지지는 않는다.

자원봉사자 양성 규모도 현재 복지재단 산하시설에만 1500여명이 투입돼 있고 매년 300명씩 새로운 봉사자가 생겨난다는 것에서 복지 인적자원 확충에도 신경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주년 성과·과제

### 인프라 구축 성공...내실화 할때

복지관 2개서 94개로...전문성 확보 요구 높아

그러나 복지재단 설립 10주년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안이 이미 지

이 당면 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교구본사와 중앙, 시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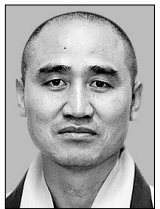
방자치단체에 이양됐고 오는 7월까지의 정부 시책에 따라 모든 미인가시설을 법인화해야 하는 등 복지환경 자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복지재단도 이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

한편 복지 전문가들은 종단에 불교복지전문연구소 설립과 복지재단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복지원' 설립이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현재 복지재단에는 연구위원회만 구성됐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연구소는 전무한 상태. 연구소가 마련되기 위한 선행조건은 운영 자금 마련과 철저한 연구 사업 구상

이기에 현재 복지재단에서 보다는 '복지원' 정도의 규모가 꽤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복강에인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은 "100여개나 되는 재단 산하 기관들을 현재 복지재단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복지원이 설립돼야 불교복지의 대사회적 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

불교환경연대 신임 집행위원장에 부안 내소사 주지 진원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2월 24일 열린 2005년 정기총회에서 현 집행위원

장 세영 스님의 후임으로 진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이와 함께 정성운 연구실장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진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 주변에서 보이는 작은 실천 활동에서부터 대형 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욕 총영사 성경강의 헌법 위반"

### 재가연대, 외교부에 공개질의

문부주 뉴욕 총영사가 교민을 상대로 성경 강의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연구원)이 외교부에 '헌법 위반'이라며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연구원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문

총영사는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무전념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문 총영사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외교부의 판단 등 7개 조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유철주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 영축총림울원 학인모집공고

영축총림 통도사에서서는 율행을 지켜 부처님의 해명을 계승하고 수행자의 청정지계 가풍을 확립시키고자 율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영축총림울원을 개원하고 울원 학인을 모집코자 하오니 방부 신청을 바랍니다.



#### 입방지원자격

·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및 2005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 모집일정

· 접수 : 2005년 3월 11일까지(음 2월 2일)  
· 전형 : 2005년 3월 12일 오후 1시(음 2월 3일)  
· 발표 : 2005년 3월 14일(음 2월 5일)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본원 소정 양식) 2) 승적사본 3) 졸업증서 4) 주민등록등본 5) 은사 및 강주스님 추천서 6) 건강진단서 7)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8) 사진(4×5) 5매 9) 본인 도장

#### 문의처

055)382-7182 (종무소 교무국)

#### 정정공고

현대불교(514호)에 게재된 통도사 울원학인 모집공고의 내용중 하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영축총림 울원 전제사 및 울주 중산 해남"을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으로 정정 합니다.

불기 2549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